제 3 전시실: 다타라 제철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타라 제철은 18 세기부터 19 세기 후반에 걸쳐 이곳을 포함한 주고쿠 지방(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 시마네현, 돗토리현, 야마구치현)의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의 철 생산량은 일본 국내 철강 생산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양의 용광로 방식이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서, 제철업계는 가혹한 경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타라 용광로에 비해 서양에서 들여온 새로운 방식의 용광로는 더 빨리, 더 많은 철과 강철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타라 기술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방식의 다타라 용광로를 제작했는데, 사철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기법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강철을 개발했습니다. 항구 도시인 야스기는 이러한 연구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전통적인 다타라 제철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1920 년대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제철소가 문을 닫게 되었지만, 다타라 제철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야스기의 철강업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서양에서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과 후에 이곳의 제철소가 일본의 제철 및 제강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